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'26.06.1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 관계자, FP10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밝혀(6.8)

- FP10의 공동 연구 예산 상당 부분이 유럽경쟁력기금(ECF) 체계하에서 운영될 전망
- ECF 워크프로그램은 집행위 단독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및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 될 예정
- 현재 유럽의회는 FP10 내 다른 필라에서 나온 우수 연구 성과도 ECF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, 집행위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

○ 호주,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확정(6.9)

- 호주가 EU와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2027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
- 호주는 그동안 제3국 자격으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해 왔음
- EU에 따르면 지금까지 호주는 총 239건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, 연구비 신청 성공률은 24.4%에 달함

○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성과,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(6.5)

- 2024년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자금 점유율은 9.3%를 기록했으며, 해당 연도는 영국이 약 3년간의 배제 기간을 거쳐 호라이즌 유럽에 공식적으로 재가입한 첫 해
- 영국의 성과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급격히 하락했고, 2023년에는 점유율이 5.8%까지 떨어지며 최저 수준을 기록
- 2024년 영국은 필라 1 자금의 14.3%, 그리고 필라 2 자금의 6.2%를 확보하여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

○ (기타) ▲집행위 연구혁신총국 총국장, EIC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(6.5) ▲EU, 2028년 봄 첫 'EU Inc' 기업 등록 기대(6.9) ▲EU, 50억 유로 규모 '스케일업 유럽 펀드' 공식 출범(6.4)